

연령과 언어 변이

박경래

세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1. 서론

사회와 격리된 인간을 상상할 수 없듯이 언어와 격리된 인간도 상상하기 어렵다. 인간이 사회적인 그물망으로 얽여있는 동물이고 그 사회적 그물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를 떠난 인간이 존재할 수 없듯이 사회와 유리된 언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사회가 달라지면 언어 사용 양상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 글은 언어 현상과 사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는 사회언어학적인 명제에 따라 ‘언어와 사회’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연령과 언어 변화’라는 주제로 기술된다. 사회계층과 성별, 연령 등은 사회 언어학의 중요한 주제인 동시에 언어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전통 방언학에서는 표준어를 기준으로 표준어에 대응하는 지역 방언을 비교하여 지역 방언에서 발견되는 언어 현상과 언어 차이에 주목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이 때문에 종래에는 주로 지리적인 거리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 방언이 보여주는 변이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그런데 지역 방언이

보여주는 지역적인 또는 방언적인 차이를 언어 내적인 조건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 이러한 차이를 자유변이(free variation)라고 보고 더 이상 그러한 차이가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변이라는 것도 언어 내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언어 외적으로는 설명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언어 변이가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언어 집단에서 언어 차이가 발견된다면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사회적인 요인과 결부시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사회언어학의 성립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언어 변이와 언어 변화의 요인으로서의 연령이 차지하는 의의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연령과 언어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령이 언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2. 언어 변화와 사회언어학

대체로 언어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는 지역이 다름으로써 언어 차이를 보여주는 경우, 즉 지리적 요인이 방언 분화에 영향을 주어 언어 차이가 생기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그 구성원들이 가진 사회적인 배경, 즉 사회 계층이 다르든가, 연령이 다르든가 또는 성별이나 종교 등이 다름으로 인해서 구성원들 간에 언어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다. 지리적인 요인에 의해 방언이 분화된 것을 지역 방언이라고 하고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분화된 방언을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

방언 형태의 공간적 분포와 그 공간적 분포가 보여주는 특질의 해명을 추구하는 종래의 방언 연구는 동일 지역 방언을 구사하는 방언 집단의 화자들은 동질적인 언어 형식을 구사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따라서 그 집단의 화자들 가운데 한두 사람을 제보자로 하여 그 사람이 구사하는 개인

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어떤 언어 집단의 모든 언어 현실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제보자를 동원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도시와 같이 잡다한 배경을 가진 잡다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언어의 사용 양상도 잡다하게 나타나므로 그 잡다한 언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한 부류의 말이 아니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제보자로 선택하여야 그 집단의 언어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 방언은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지역 방언만큼 그 현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으레 지역 방언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언어 현상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과 관련시켜 관찰하려는 태도가 대두됨에 따라 사회 방언이 중요한 연구 과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종래에 자유변이라고 일컫던 유형의 언어 현상들이 무조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언어 외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데 관심이 쏠리면서 사회 방언학 내지 사회 언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발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 계급, 연령, 성별, 종교, 인종 등 사회 방언을 이루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이 간명하게 하나로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 요인별로 하나씩 따로 떼어 살펴보는 것이 편리하다. 이 글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가운데 편집자의 요청에 따라 연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언어 변화와 연령

어떤 언어 집단 내에서 그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말에서 동일한 대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공시적으로 둘 이상의 어형이 공존하면서 둘 이상의 어형이 함께 사용되는 것을 언어 변이라고 하고 이렇게 진행 중인 변이가 완료된 결과를 언어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의 대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어형이 공존하게 되

는 요인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하나의 언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사회 계층에 의해 언어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별에 의해 언어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연령의 차이에 의해 언어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종교나 인종, 교육 등의 요인에 의해 언어 변이가 일어나게 되며, 이러한 언어 변이는 음운론, 형태론, 어휘론, 통사론 등 모든 층위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때 언어 변이 현상에 참여하는 각각의 어형을 변이형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변이 현상들을 관찰할 때 표준어를 기준으로 표준어와 대립되는 지역 방언에서 발견되는 차이에 주목해 왔다. 이 때문에 언어 변이라고 하면 주로 방언 변이 또는 지역적 변이를 일컫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변이 현상이 음운론적 조건이나 형태론적 조건 또는 의미론적, 통사론적 조건 등과 같은 언어 내적인 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가령, 동일한 언어 집단 내의 서로 다른 화자들이 서로 다른 말투를 사용한다거나 동일한 언어 집단 내의 동일한 화자가 때에 따라 상이한 말투를 사용할 때 전통 방언학에서는 이것을 자유변이(*free variation*)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동일 집단 내의 서로 다른 화자가 왜 서로 다른 말투를 사용하는지, 또는 동일 집단 내의 동일한 화자가 때에 따라 왜 상이한 말투를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언어 내적인 조건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일한 집단 내에서 상이한 말투가 사용되는 양상을 자유변이로 처리하게 된 데에는 전통 방언학적인 연구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나는 방언 조사와 연구를 국어사 연구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어사 연구 자료가 한정되어 있고 제약되어 있어 방언을 통하여 문헌 자료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는 태도를 취한 것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 방언에서 수집되고 관찰되는 방언형들의 유형과 분포를 통하여 문헌 이전의 언어 현상이나 언어 변화의 과정과 원리를 찾아보려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술언어학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방언을 연구함으로써 방언에서 관찰되는 언어 현상들을 통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수립하려 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또한 개별

방언의 언어 체계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다양한 언어 현상들이 보여주는 원인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즉 하나의 언어 집단에서 사용하는 언어 형식은 동질적일 것이라는 전제 아래 방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언어 집단에서 사용되는 토착 방언을 수집하기 위해 주로 3대 이상을 대대로 그 지역에서 살아온 노년층의 토박이 화자가 사용하는 방언을 수집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언어 집단을 대표하는 개인어(idiolect)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이 때문에 그 언어 집단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변수들, 즉 학력이나 성별,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등 그 토박이 화자와 사회적인 성격을 달리 하는 화자들의 말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거나 자유변이로 처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 언어 집단에서 관찰되는 언어 현상을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낳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그 언어 집단에 존재하는 많은 언어 현상들이 무시될 수 있어 그 언어 집단의 실제적인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해당 방언이 사용되는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적인 배경이나 언어 변이가 일어나는 사회적인 조건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 집단의 언어 현상을 잘못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 대두된 것이 1960년대 중반부터 라보브(Labov)가 주도해 온 사회언어학 내지 사회방언학이다.

사회언어학에서는 언어 변이의 유형들과 그러한 변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인 조건과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회 과학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을 원용하였다. 이에 따라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조사와 처리에서 계량적(quantitative)인 분석을 통하여 언어 변화의 과정과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떤 방언 화자가 자기가 속한 언어 집단을 아무리 잘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만의 방언 특질을 구사하는 사람은 없고 말하는 순간의 언어적 상황에 따라 말투가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언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가변적인 대상이고, 언어 연구의 대상 또한

한 언어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이는 개인어가 아니라 그 언어 집단 전체가 사용하는 언어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언어 변이는 모든 언어 층위에서 사회계층, 연령, 성별, 학력 등과 관련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동질적인 언어 집단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 집단에서 사용되는 언어 현상에는 다양한 사회 구성 요소가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언어 변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위해 다수의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적인 처리 방법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분석 결과 언어 변이가 사회 계층,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그물망(social network)과 같은 사회적 변함과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입증 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언어 변이를 일으키는 주요한 사회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연령이라는 점을 여러 번 지적하였다. 전통 방언학에서 어떤 언어 집단을 대표하는 제보자를 선정할 때 토박이이면서 노년층일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도 연령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는 노년층의 말과 다른 연령층, 즉 장년층이나 청소년층의 말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가 연령을 고려한 언어 변이에 대한 관찰의 의의가 된다.

4. 연령과 언어 변이

언어 변이를 연령과 관련지어 살펴보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세대 차이(generation difference)에 의한 언어 차이이고, 다른 하나는 연령 단계(age-grading)에 의한 언어 차이이다. 둘 다 연령 차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지만 전자는 신세대 또는 청소년층 세대에 의해 언어가 새로워지고 그 때문에 언어 변화를 초래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어서 기성세대와 신세대, 또는 노년층 세대와 청소년층 세대와 같이 세대 간에 언어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 후자는 한 개인이 나이에 걸맞은 언어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언어 차이로서 어릴 때는 어린이다운 언어 형식을 쓰다가 어른이 되면 나이

에 걸맞은 어른다운 언어 형식으로 바꾸어 쓸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연령 단계에 따른 언어 차이라고 한다. 이 장에서는 세대 차이에 의한 언어 차이와 연령 단계에 따른 언어 차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1. 세대별 언어 차이

사회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언어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언어 변화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을 두고 일어나기도 하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행하는 짧은 기간 내에 일어나기도 한다. 오랜 기간을 두고 변화해온 언어 변화는 세대와 세대 간의 언어 변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 간에 관찰되는 언어 차이는 언어 변화의 결과이든가 진행 중인 언어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1.1. 세대별 언어 변이

종래 전통 언어학에서는 진행 중인 언어 변화는 관찰할 수 없고 변화된 결과만을 관찰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해 왔다. 언어 변화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를 눈치 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관찰되는 언어 차이는 방언이 섞여 있거나 자유변이(free variation)의 결과여서 어떤 원칙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어 현상이 사회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사회언어학자들은 언어 변화가 느리고 점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주변에서 관찰되는 언어 차이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변화의 방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준다고 보고 진행 중인 언어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다. 가령 ‘고등어 한 손을 사왔다’고 하면 기성세대들은 배를 가르 큰 고등어에 그보다 조금 작은 고등어 한 마리를 끼워 넣은 두 마리를 사왔다는 뜻으로 쉽게 알아듣지만 요즘 신세대들은 고등어가 몇 마리인지 크기가 어떤지를 모르고 그 대신 ‘고등어 두 마리를 사왔다’고 해야 알아듣는다면 이것은 언어 변화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

세대들이 ‘석 되, 녀 되, 서 말, 너 말’이라고 하고 ‘새달, 동짓달, 선달’이라고 하던 것을 신세대들이 ‘세 되, 네 되, 세 말, 네 말, 다음 달, 11월, 12월’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와는 약간 다르게 아버지 세대가 ‘꽃이[꼬치], 꽃을[꼬출], 꽃에[꼬체]’와 ‘밭이[바치], 밭을[바틀], 밭에[바테]’와 같이 규칙적으로 발음하는 데 비해 아들 세대에서는 ‘[꼬시], [꼬출], [꼬세], [바시], [바슬], [바테]’와 같이 발음한다면 이는 진행 중인 언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무릎이→무릅이, 무릎에→무릅에’가 완성된 사람들에게도 ‘앞이, 앞이’의 ‘ㅍ’을 ‘ㅂ’으로 바꾸지 않고 있고, ‘밭이→밭이, 밭을→밭을’이 완료된 지역에서도 ‘밭에, 밭에서’는 ‘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익섭 1994, p. 149). 이렇게 변화가 완료되지 않고 유동적인 모습을 띠고 진행 중인 언어 변화를 변이(variation)라고 한다. 현대국어에서 이런 변이의 모습을 띠는 것이 위에 든 예들처럼 표준어형에서 방언형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역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다음의 예 (1)을 보자.

(1)

- a. 스속을 갈어 놓구 못 갔다 먹었어.
- b. 저 근네루 해서 우리 마실 앞으루 해서 가는데 질이 매켜서 못 갔어.
- c. 요새 낭구렐 누가 억씨게 하나?
- d. 아이매구 이듬매구 또 매구 호매이루 땀어, 시방은 피사리만 하지만.
- e. 논 땀 짝에 삼배출 나라구 하지, 삼배출은 슝:섬 나능 기여.

위의 예문 (1)은 충청북도 방언의 노년층 화자의 말인데 예문에 쓰인 ‘스속, 근네, 마실, 질, 매켜서, 낭구, 억씨게, 호매이, 시방, 땀 짝에, 슝:섬, 나능기여’는 충청북도 방언형이다. 각각 표준어형 ‘조, 건너, 마을, 길, 막혀서, 나무, 억세계, 호미, 지금, 땀 적에, 석 섬, 나는 거야’에 대응된다. 이 방언의 신세대들은 ‘막혀서~맥혀서, 나는 거야~나는 기여’를 제외하면 대체로 표준어형을 사용한다. 이는 ‘막혀서~맥혀서, 나는 거야~나는 기여’는

진행 중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며 나머지 예들에서는 표준어로의 변화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준어로의 변화는 교육 등과 같은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이지 자생적인 언어 변화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비슷한 예가 미국 영어에서도 관찰되었다. 영국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영어에서도 모음 뒤의 [r] 발음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뉴욕의 경우 모음 뒤에서 [r] 발음을 하는 것이 위세형으로 자리를 굳히고 나서 이 현상이 젊은층으로 갈수록 점차 세력을 확장해 간다면 이런 경우는 단순히 변이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변화로 이어지는 현상이 관찰되기에 세대 간에 나타나는 언어 차이가 언어 변이로서 관찰 대상이 되는 것이다.

4.1.2. 세대별 언어 변화

여기에서는 젊은 세대에 의해 언어의 개신이 일어나고 그 개신으로 인해 언어가 변화한다는 관점에서 연령과 관련된 언어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젊은이들은 늘 기성세대는 구식이고 보수적이라고 여긴다. 이 점은 언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 사이에 언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필자가 10여 년 전에 경험했던 다음의 일화는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의 언어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아이가 하루는 “아빠 난 ‘학교’와 ‘핵교’의 차이가 뭔지 알아.”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뭔데?” 하고 물었더니 “‘학교’는 ‘다니는 것’이고 ‘핵교’는 ‘맹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항상 ‘핵교에 맹긴다’고 말하는데 엄마나 아빠는 ‘학교에 다닌다’고 말한다는 설명이었다. 아이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당시에 자기 집에 가끔 놀러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 집에 올 때마다 아이한테 “넌 무슨 핵교에 맹기니?”라고 묻거나 “니가 맹기는 핵교 이름이 뭐니?”하고 묻거나 ‘누가 무슨 무슨 핵교에 맹기는

데…….’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핵교’라고 말하면 서술어로 ‘맹긴다’를 쓰고 ‘학교’라고 말하면 서술어로 ‘다닌다’를 쓰는데 ‘핵교’는 할머니가 쓰는 말이고 ‘학교’는 엄마 아빠가 쓰는 말이라는 설명이었다. 이 경우 노년층이 쓰는 방언형을 젊은층에서는 표준어형으로 바꾸어 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아이의 눈으로 관찰한 연령에 의한 언어 차이, 즉 세대 차이에 의한 언어 차이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노년층 세대에서는 ‘핵교 맹긴다’와 같이 방언형을 쓰는 데 비해 젊은층 세대에서는 ‘학교 다닌다’와 같은 표준어형을 쓰게 된 원인은 표준어 교육이나 매스컴 등의 영향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대와 세대 간에서 관찰되는 언어 차이는 한 세대 사이에 일어나는 수 없이 많은 사회 변화의 결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먼저 농촌에서 조사된 할머니의 말 가운데 일부를 예로 들어보자.

(2)

- a. 흑징이루 갈구 물을 대서 쓰레질을 하구 번지루 괜하게 골러.
- b. 갈게는 짚으루 응을 엮어서 지붕을 해 이구 용구새를 틀어서 덮지.
- c. 논 갈 짝에? 소에 멩애를 메워서 흑징이루 논을 갈잖어.

만일 충청도 출신 중년층의 아버지 세대라면 위의 예 (2)에 제시된 예문들을 보고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들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말이 될 것이다.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차이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한 세대 사이에 일어난 사회 변화로 아버지 세대가 쓰던 사물들이 아들 세대에는 없어지거나 다른 사물로 대체되면서 아들 세대에서는 사물의 명칭과 용법에 대한 말이 사라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 세대에서 쓰던 방언형들이 아들 세대에서는 표준어로 대체되어 쓰이거나 다른 방언형으로 바뀐 경우다.

위의 예문들 가운데 (2a)의 ‘흑징이(극쟁이), 쓰레(씨레), 번지’와 (2b)의 ‘갈게(가을에), 응(이엉), 용구새(용마름)’ 그리고 (2c)의 ‘멩애(명애), 흑징이

(극쟁이)’ 등은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게 된 말이다. 이들 단어는 아버지 세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세대가 자연스럽게 썼고 그것이 지시하는 사물들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들이므로 아버지 세대가 어른이 된 지금도 그 단어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여 농기구와 농사법이 바뀌면서 아들 세대에 오면 이들 단어가 가리키는 사물들을 볼 수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단어들 쓰지 않음으로써 위의 예문에 쓰인 단어들 생소한 말로 들리게 될 것이다. 아들 세대는 ‘흑징이, 쓰레, 번지, 멩에’ 대신 ‘트랙터’나 ‘경운기’라는 단어를 쓸 것이고, ‘응’이나 ‘용구새’ 대신 ‘기와’나 ‘슬래브’ 같은 단어를 쓸 것이다. 아들 세대가 쓰는 ‘트랙터, 경운기, 기와, 슬래브’와 같은 단어들은 아버지 세대부터 쓰기 시작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들 단어는 아들 세대와 아버지 세대가 함께 쓸 것이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흑징이, 쓰레, 번지, 멩에, 응, 용구새	흑징이, 쓰레, 번지, 멍에, 응, 용구새, 트랙터, 경운기, 기와, 슬래브	트랙터, 경운기, 기와, 슬래브

<표 1> 세대별 어휘 사용 양상

위의 <표 1>은 세대별로 어휘가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그림을 통하여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흑징이, 쓰레, 번지, 멩에, 응, 용구새’만 사용하고, 아버지 세대에서는 ‘흑징이, 쓰레, 번지, 멩에, 응, 용구새, 트랙터, 경운기, 기와, 슬래브’를 다 사용하는 데 비해 아들 세대에서는 ‘트랙터, 경운기, 기와, 슬래브’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들 세대가 볼 때 할아버지 세대나 아버지 세대에서 쓰는 ‘흑징이, 쓰레, 번지, 멩에, 응, 용구새’ 등은 옛날 사람들이 쓰는 말처럼 느껴질 것이고, 반대로 할아버지 세대나 아버지 세대들은 새로 쓰이기 시작한 많은 사물들의 이름에 대하여 아들 세

대만큼 밝지 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위의 <표 1>은 아버지 세대를 매개로 할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로 넘어가면서 말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다시 말하면 아들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만큼 나이가 들면 현재 할아버지 세대가 쓰는 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아들 세대가 아버지 세대를 대치할 것이므로 말도 아들 세대의 말이 아버지 세대의 말을 대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예들은 수없이 많이 있다. 7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와 농촌 인구의 감소로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전래적으로 탈곡에 사용해 오던 ‘개상, 자리개, 도리개’ 등이 쓰이지 않게 되고 ‘콤바인’이 대신하게 되자 아들 세대는 전래적인 농기구의 이름을 모르게 되었다. 구식 한옥에서 살던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에게는 ‘두레박, 찌리, 아궁이, 부뚜막, 부지깥이, 살강, 시렁’ 등이 자연스럽게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아파트에 사는 도시의 아들 세대들에게는 책에서나 보고 읽을 수 있는 생소한 말이 되어 버렸다. 반대로 아버지 세대를 매개로 새로 등장한 ‘수도꼭지, 정수기, 물통,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싱크대’ 등이 아들 세대에서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쓰이는 말인 데 비해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쓴다고 하더라도 어색한 말이어서 세대가 바뀌어 아들 세대가 아버지 세대의 나이가 된다면 ‘두레박, 찌리, 아궁이, 부뚜막, 부지깥이, 살강, 시렁’ 등의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양상은 의생활에서도 쉽게 관찰된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에서는 입고 신고 하던 ‘고쟁이, 잠방이, 두렁이, 미투리, 나막신’ 등이 의생활의 변화로 아들 세대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옷이 되었고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신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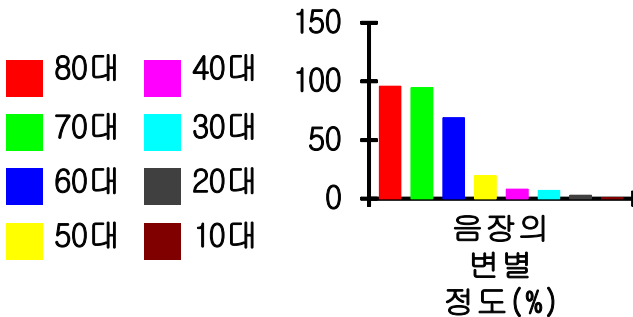
이와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간에 언어적 차이를 보이는 노년층은 대체로 젊은 시절에 익힌 언어 습관을 늙어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젊은층에서 일어나는 언어의 개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사물도 변화하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신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개신형을 더 많이 쓰

게 됨으로써 세대가 바뀌면 언어도 그만큼 변화를 겪게 된다. 국어에서도 음장이나 모음체계가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경래 1993, p. 74, 112). 박경래(1993, p. 72)에 의하면 충주 방언에서 음장의 변별적 기능을 하는지의 여부를 연령층별로 조사한 결과 <표 2>와 <그래프 1>에서 보듯이 60세를 기준(1992년 조사 당시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음장이 변별적 기능을 하여 ‘말, 발, 일, 눈’ 등을 장모음으로 발음하면 각각 ‘말:[言語], 발:[籐], 일:[事], 눈:[雪]’의 뜻이 되고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말[馬], 발[足], 일[一], 눈[眼]’의 뜻이 되지만 6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대부분 음장의 변별적 기능을 상실하여 장모음으로 발음하든 단모음으로 발음하든 음장에 의해서는 그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문맥으로만 구분할 뿐이다. 이는 60세를 기점으로 음장의 변별적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층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음장의 변별 정도(%)	95.8	94.4	68.8	19.3	8.0	6.9	2.8	0.6

<표 2> 충주 방언의 음장의 연령층별 변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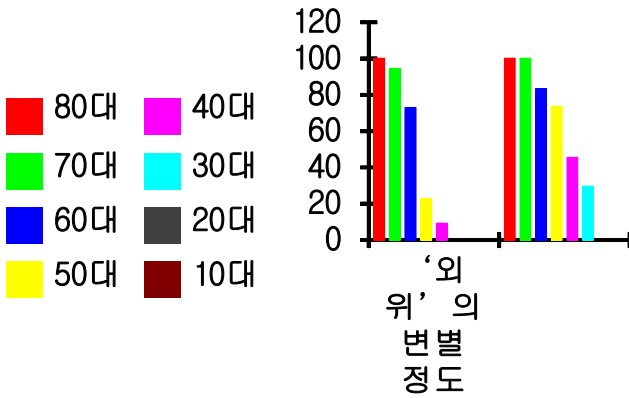
<그래프 1> 충주 방언의 음장의 연령층별 변별 정도(%)

그러나 세대 간의 언어 차이가 연령층에 따라 항상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언어 공동체 내에서도 언어 변수에 따라 연령층별로 실현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충주 방어의 경우 모음 ‘외, 위’가 각각 단모음 /Ü/, /Ö/로 변별되어 실현되는 비율과 단모음 ‘애, 에’가 각각 /ɛ/, /e/로 변별되는 비율이 <표 3>과 <그래프 2>에서와 같이 연령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표와 그래프에서 보듯이 모음 ‘외, 위’는 60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단모음 /Ü/, /Ö/로 변별되지만 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이중모음 /wi/, /we~wE/나 단모음 /i/, /e~E/로 실현되어 전설 원순 모음으로서의 변별력을 상실함으로써 60세 이상 연령층과 그 이하 연령층 간에 모음체계의 차이를 보인다. 모음 ‘위, 외’와는 달리 모음 ‘애, 에’는 50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ɛ/, /e/로 잘 변별되지만 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E/로 중화됨으로써 변별력을 상실하여 역시 모음체계의 변화를 보일뿐만 아니라 변별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여 준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언어 공동체 내에서도 세대와 연령층에 따라 언어 변화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연령층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외, 위’의 변별 정도	100	94.4	72.9	22.7	9.1	0	0	0
‘애, 에’의 변별 정도	100	100	83.3	73.7	45.5	29.6	0	0

<표 3> 단모음 ‘외, 위’와 ‘애, 에’의 변별 정도(%)

언어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관찰하는 방법은 어떤 지역의 말을 한 번 조사해 놓고 30년이나 50년 후에 같은 지역의 화자들을 다시 조사하여 비교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실시간 방법(real-time method)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는 제약이 있다. 즉 처음 조사했을 때의 거주자들이 이사를 하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하여 나중에 조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무엇보다 연구자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어 실제 시간의 두



<그래프 2> 단모음 '외, 위'와 '애, 에'의 연령층별 변별 정도(%)

시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느 한 시기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연령 집단을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언어 변화의 양상과 방향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현장 시간 방법 (apparent-time method)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한 시기의 두 세대가 실제 시간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다. 가령 <그래프 2>에서 1993년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80대는 100%가 '외, 위'를 단모음으로 변별하고 50대는 22.7%만이 변별하는데 30년 후가 되면 현재의 50대는 80대가 될 것이므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이 두 모음을 단모음으로 변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현장 시간 방법을 이용하여 언어 변화를 관찰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연령 단계에 따른 언어 사용을 언어 변화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년층이나 중년층에서는 '어머니'라고 하는데 젊은층으로 갈수록 '엄마'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어머니'가 '엄마'로 변화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이익섭 1994, p. 152). 왜냐하면 어느 나이 또래에 알맞은 어형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언어 습관의 결과와 언어 변화와 관련되는 세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언어 차이와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언어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준 외국의 고전적인 사례는 라보브(Labov 1963)가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연안에 있는 마서스비니아드(Martha's Vineyard)라는 섬에서 'time, night' 등의 이중모음 [ay]와 'out, hiuse' 등의 이중모음 [aw]가 뉴잉글랜드 표준형인 [ai]와 [au] 대신 이중모음의 첫모음을 중설화한 이 섬의 전래적인 방언형 [eɪ], [eu]와 [æɪ], [æu] 같은 변이형을 확장해 가고 있는 현상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라보브(Labov 1963)는 이러한 현상을 이 고장 사람들이 휴양지인 이 섬을 찾아오는 외지인들: '외, 위'의 변별 정도 구성 '에, 애'의 변별 정도 스스로 구분 짓는 징표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젊은층으로 내려갈수록 확산되어가는 것으로 보았다. 이 섬의 주민들이 자신들을 외지인들과 구분 지으려는 심리는 섬 주민들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이 외지인들에 대한 저항으로 고품스러운 발음인 중설화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두 언어 변수가 중설화된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을 몇 개의 연령 집단으로 나누어 보면 30세 이하의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젊은층으로 갈수록 방언형의 쓰임이 확장되었는데 이것을 언어 변화의 조짐으로 해석하였다. 3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방언형보다 표준형을 실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들 연령층의 사람들은 아직 이 섬에 남을 것인지 육지로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경우에도 섬에 남기를 원하는 젊은이는 중설화율이 높고 외지로 나가 살기를 원하는 젊은이는 중설화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아도 두 언어 변수에서 다 같이 어민이 농민이나 기타의 직업에 비해 중설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외지인에 대한 저항이 어민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언어적인 태도에서도 나타났는데 섬 주민들이 자기 섬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일수록 중설화율이 높았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이 섬의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4.2. 연령 단계별 언어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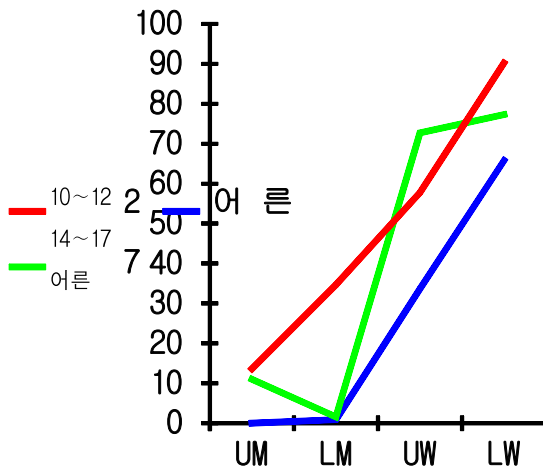
우리는 앞에서 연령이 언어 변이를 일으키는 주요한 사회적 요인임을 확인하면서 연령을 고려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하나는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장 시간 방법에 따라 두 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언어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나 또래 집단이 연령 단계(age grading)에 따라 거기에 알맞은 언어 형식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언어 사용과 연령과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달라지면 자연히 거기에 맞는 행동 양식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 양식 가운데 하나가 언어 사용이다. 가령, ‘엄마, 아빠’와 같은 말은 유아어이고, ‘자네, 댁’과 같은 단어는 어른들의 말이라는 것도 나이에 따른 사회적 행동 양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생을 연령에 따라 유년층, 청소년층, 장년층, 중년층, 노년층 등과 같이 몇 단계로 나누어 어느 세대를 가리킬 때 각 세대에 어울리는 행동 양식이 있게 마련이다. 개인의 일생을 연령에 따라 나눈다면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으로 바꾸어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령이라는 사회적 변수를 연령 단계와 관련지어 관찰할 때 몇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유아들의 경우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끌기 위해 ‘엄마, 까까 사줘’, ‘어:기 가자’ 등과 같은 말을 쓴다든가 떼를 쓴다든가 하여 그들만의 언어적 행동 양식을 보인다. 이와 달리 청소년층에서는 또래들끼리의 유대를 강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말을 만들어 쓰는 경향이 있고 비표준형을 많이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이 만들어 쓰는 ‘땡깡다(빠진다), 썩까다(무시하다), 뽕까다(거짓말하다), 씹는다(무시하다, 욕하다), 오버다(지나치다), 쪽팔리다(부끄럽다, 창피하다)와 같은 새말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짧다는 특징이 있다. 이 연령층의 또다른 특징은 어른들보다 비속어나 비표준형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인데 비표준형은

	10~12세	14~17세	어른
UM	13.6	11.0	0.0
LM	34.7	1.6	0.9
UW	57.8	72.7	33.7
LW	90.2	77.3	65.8

<표 4> 다중 부정의 사회계층 및 연령별 실현율
 (Wolfram 1969, p.163, Wolfram & Fasold 1974, p.91, 이익섭 1994, p.141)



<그래프 3> 다중 부정의 사회계층 및 연령별 실현율

유행어와 달리 안정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층이 어른들보다 높은 비율로 비표준형을 사용하는 예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흑인 사회의 조사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4>와 <그래프 3>은 “He didn’t do nothing.”과 같은 다중 부정 문장의 사용률이 모든 사회계층에서 청소년이 어른들보다 비표준형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와 그래프를 통하여 청소년층에서는 다시 10~12세 층의 소년층이 10대인

14~17세 층보다 비표준형을 더 활발히 쓰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말을 배워 가면서 말투(style)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시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이익섭 1994, p.142). 자기 말투에 신경을 쓰고 표준형의 존재를 깨닫는 나이가 중학교 1학년 때이고 이때 이웃보다 큰 집단에 노출되면서 전환기를 맞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소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표준형을 많이 쓰는 것은 또래끼리 어울리는 그들의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 시기에는 부모의 영향보다 또래들의 영향이 크다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 직장을 가지면 위세형인 표준형을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이 시기에 사회 규범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고 30~55세에 정점을 이룬다는 것이다(Holmes 1992, p. 186). 이 시기가 되면 ‘엄마, 아빠’와 같은 어린이 말투의 호칭은 잘 안 쓰게 되고, ‘자네, 권 씨, 이 씨’ 등의 호칭을 쓰게 되어 어린이나 청소년층에서는 쓰지 않던 ‘자네, 이따가 나 좀 보세’, ‘권 씨, 이것 좀 갖다 줘’와 같은 어른 말투를 쓴다.

위세형인 표준형을 가장 많이 쓰는 중년기를 지나 노년기가 되면 비표준형의 사용이 다시 증가하는데 그것은 정년이 되어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사회적인 압력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중년기에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활동 등으로 표준형을 많이 쓰다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노년기가 되면 다시 예전부터 주변 사람들이 써 오던 비표준형을 쓰게 된다. 이런 현상은 특히 학력이 높은 여성 화자의 경우에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주변의 또래 집단과 사회적인 환경에 동화하기 위한 심리적인 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시골에 사는 어떤 중학생이 서울에 있는 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 서울에 사는 동안에는 자기의 말투를 버리고 서울 말투로 바꾼다. 그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생활하게 되면 고향에 남은 또래 집단들이 쓰는 말투로 바꾸게 된다. 서울 말투를 계속 쓰게 되면 튀는 행동으로 여겨져 또래 집단과 융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호칭이 연령 단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엄마, 아빠’

나 ‘자네’의 쓰임을 통해서 언급한 바 있다. 어릴 때 쓰던 ‘엄마, 아빠’ 대신 어른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로 바꾸어 부르게 된다. 여성의 경우는 출가하여 중년이 되어도 드물게 ‘엄마, 아빠’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쓰이지 않는다. 남성의 경우는 대학생이 되거나 군대에 갔다 오면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성보다 더 일찍 이 호칭을 쓰지 않는 것으로 관찰된다. 결혼하기 전에는 ‘누나’라고 부르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누님’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누나’라고 부르는 연령 단계가 있고 ‘누님’이라고 부르는 연령 단계가 있는 것이다. 신세대는 ‘누나’라고 부르고 기성세대는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젊은 세대일 때는 ‘누나’라고 부르다가 나이가 들어 장년층 이상이 되면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들을 이름으로 부르다가 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결혼하면 ‘큰애야’, ‘작은애야’와 같이 부르다가 아이가 생기면 ‘아비야’나 ‘아범야’ 하고 부르는 것도 연령 단계가 호칭 사용에 작용한 결과다. 갓 시집온 며느리에게 ‘아가’, ‘애야’와 같이 부르다가 아이를 낳으면 ‘어미야’, ‘OO 어미야’와 같이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연인들끼리 ‘자기’라고 부르던 것을 결혼 후에도 얼마간 사용하다가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이가 들어 노년층이 되면 ‘마누라’나 ‘영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도 연령 단계가 호칭 사용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앞에서 언급한 ‘자네, 나 좀 보세’의 경우도 그렇다. ‘자네’는 아랫사람이나 친구에게 쓸 수 있는 말인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이 말을 쓴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날 것이다. 이 말은 적어도 나이가 서른 살은 넘어야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네’라는 말은 나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자네(또는 당신)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너무 만만히 대하기가 어려워 내가 점잖게 이 말투를 쓴다는 점잖음, 격식, 권위 같은 것이 이 말투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익섭 1994, p. 145). 그리고 이런 어른 말투를 사용하는 시기가 도시보다 농촌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에 사는 친구들은 30대 초반에 벌써 ‘자네’를 쓰기 시작했는데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40대 초반이 되어도 잘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예전에 이런 말을 쓰던 나이보다 나이가 더 들어서야 이 말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 고루하고 권위적이라고 여기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일부 방언권에서는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자네’나 ‘당신’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데 일부 방언권에서는 상대방을 낮추어 부르는 의미가 있다고 여겨 친구에게 이 말을 쓰면 듣는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연령이 언어의 사회적 변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연령 등급이 우리의 언어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았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언어 변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인 요인으로 ‘사회 계층, 성별, 연령’ 외에 ‘학력, 종교, 직업’ 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가운데 연령이 언어 변이나 언어 변화와는 어떤 관련을 가지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때 언어에 영향을 주는 연령(나이)을 세대 차(연령 차)와 연령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연령 차로 이해하면서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두 세대 간의 언어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는 진행 중인 언어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때의 언어 변화는 사회 변화가 반영된 것이며 그러한 변화는 기성세대보다는 신세대가 주도한다고 보았다. 또한 현장 시간 방법을 통하여 진행 중인 언어 변화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실시간 방법을 통한 연구에서보다 더 생생하고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 단계는 각각의 연령 단계에 걸맞은 행동 양식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 변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의 개념으로 보았다. 연령 단계에 따른 언어 차이가 언어 변화와는 다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던 셈이다. 다시 말하면 각 연령 단계에 사용하는 말은,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에는 언어 차이가 있어서 각각의 세대가 쓰는 말이 고정되어 쓰임으로써 신세대는

자기들이 쓰는 말을 나이가 들어도 계속하여 써서 언어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과는 달리, 개인이나 또래집단이 연령 단계(age grading)에 따라 거기에 알맞은 언어 형식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결과로 보았다. 즉, 사람은 사회적 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는 행동 양식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 양식 가운데 하나가 언어 사용이라고 본 것이다.

요컨대, 연령을 언어 변화를 가져오는 세대 차이로서의 나이와 언어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연령 단계로서의 나이로 구분할 수 있음을 보았다. 아울러 현장 시간 방법에 따라 진행중인 언어 변화를 연령과 관련지어 살펴봄으로써 과거의 언어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박경래(1984), ‘괴산방언의 음운에 대한 세대별 연구’, “국어연구 57”, 서울대학교.
- 박경래(1989), ‘괴산지역어의 사회방언학적 고찰’, “국어국문학 101”, 국어국문학회.
- 박경래(1993), ‘충주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방언연구회(2001), “방언학 사전”, 서울: 태학사.
- 이상규(1999), “방언학”, 서울: 학연사.
- 이익섭(1984), “방언학”, 서울: 민음사.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서울: 민음사.
- 황적륜 외 공역(1994), “사회언어학”, 서울: 한신문화사.
- 박의재 · 정미령 역(1999), “현대 사회언어학”, 서울: 한신문화사.
- Fasold, R. W.(1990), “The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Oxford: Blackwell.
- Labov, W.(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Washington, D. 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3rd ed. 1982).

Labov, W.(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Wolfram, W. & R. Fasold(1974), "The Study of Social Dialects in American Englis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